

## PRESS RELEASE

**한국애브비, 제 4 회 애브비워크 2019 캠페인으로 직원 건강과 환자를 위한 기부도 챙겨요!**



대한민국 서울, 2019 년 12 월 2 일 -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가 10 월 1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 약 2 개월간 암·희귀·난치질환 환자 등을 위한 걷기 캠페인 ‘애브비 워크(AbbVie-Walk) 2019’ 을 진행했다고 2 일 밝혔다.

애브비워크(AbbVie-Walk)는 걷기를 통해 직원들의 건강도 챙기고, 혁신적 아이디어도 얻으며 걷기 목표 달성 시 환자들을 위해 기부하는 한국애브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4 년째 진행된 애브비워크는 총 걸음 목표를 정한 뒤 직원들의 걸음을 모아 목표 달성 현황에 따라 기부금을 결정했다. 많은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3 만눈(300km)를 걸으면 치킨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개인전으로 진행된 2019 애브비워크는 현재 전직원의 약 83%인 116 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목표 대비 135% 이상을 달성했다.

애브비워크 캠페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빅 워크(Big Walk)를 통해 ‘암·희귀·난치질환 환자 등을 위한 한국애브비 캠페인’ 모금통을 설치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해 모금통에 참여하고 생활 속에서 걷기를 실천하면서 걸음 수를 누적해 왔다. 올해는 30 만 km 를 목표로 최대 40,000km(4,000,000 눈)까지의 걸음 누적 목표를 초과 달성해 약 2,000 만원이 환자들을 위해 기부된다.

한국애브비 영업부 김우성 차장은 “애브비워크가 진행 기간 중에는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고, 이동 시에도 차량보다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며, 주말에도 걷기가 생활이 됐다”며, “참여하는 동료들과의 걸음 수 경쟁이나 하루하루 걸음 수를 더하며 성취감과 활력이 느껴졌고, 중간 목표를 달성하며 치킨 받는 재미도 있었는데, 무엇보다 나와 동료들의 걸음이 환자들을 돕는데 값지게 쓰인다고 하니 일석삼조의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한국애브비 강소영 대표이사는 “애브비워크는 걷기를 통해 직원 건강을 챙길 뿐만 아니라 걸음 목표 달성에 따라 회사의 매칭 기부로 환우도 지원하는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다”, “환자의 삶에 의미있는 변화를 위한 비전 실천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낸 아이디어로 시작돼 해를 거듭할수록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도 높아져 올해는 역대 최대인 전 직원의 80% 이상이 참여해 열심히 걸음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캡션] 한국애브비가 10 월 1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 약 2 개월간 암·희귀·난치질환 환자 등을 위한 걷기 캠페인 ‘애브비워크(AbbVie-Walk) 2019’를 진행했다.*

## 애브비에 대하여

애브비는 연구 기반의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어렵고 심각한 질환들을 치료하는 혁신 치료제 개발에 헌신한다. 당사의 미션은 전문성, 헌신적인 직원들, 혁신을 향한 독창적인 접근법을 통해 네 개의 중요 치료 영역인 면역학, 종양학, 바이러스학, 신경과학 분야에 걸쳐 치료법을 현저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애브비의 직원들은 75개국 이상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다. 당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abbvie.com](http://www.abbvie.com) 방문, 트위터 계정 [@abbvie](https://twitter.com/abbvie) 팔로우, [페이스북](#)과 [링크드인](#), [인스타그램](#)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애브비 (대표이사 강소영)는 서울 본사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에 걸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상세 정보는 [www.abbvie.co.kr](http://www.abbvi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